영주시민신문 영주TV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순흥저수지 묵은 쓰레기 ‘말끔히’

오공환 기자 | 승인 2026.10.19 18:51 | 호수 1081

직원·수리시설감시원 저수지 주변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집중 수거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깨끗한 농촌환경·수변공간 가꾸기 앞장

영주시민신문 영주TV

kr 한국농어촌공사
영주시민신문 영주TV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 쓰담
영주시민신문 영주TV

저수지 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과 낚시객들이 두고 간 생활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는 지난 14일 영주시 순흥면 순흥저수지에서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주봉화지사 직원과 수리시설감시원이 함께 참여해 저수지 제당 아래와 주변 곳곳을 돌며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저수지 주변에 쌓여 있던 각종 영농폐기물과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를 치우며 수변환경을 정비했다. 참가자들은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저수지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도 함께 되새겼다.

조정옥 지사장은 “깨끗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가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